

다이칸쇼

에도 시대(1603~1867)에 이와미 은광은 도쿠가와 막부, 즉 중앙 정부의 직할령이었습니다. 막부의 대표자인 다이칸은 경비를 강화한 다이칸쇼에서 은광과 그 주변의 통치하는 등의 집무를 수행했는데, 바로 이 다이칸쇼를 중심으로 오모리 마을이 발전했습니다. 다이칸의 책무는 세금 징수, 법질서 유지, 은광 개발을 통한 산출량 및 효율 향상의 확보 등이었습니다. 다이칸쇼는 이러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로 세금 계산이나 은 채굴 등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현지 관리를 다수 고용했습니다.

현재 이와미 은광의 다이칸쇼가 있었던 장소에는 1815년에 세워진 문과 1902년에 지어진 본관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자료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본관에는 중세부터 1923년 은광이 폐광될 때까지 이와미 은광의 채굴 역사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랜 세월을 거치며 변화한 다양한 채굴 장비의 모습, 광부와 그의 가족들의 생활상, 현지 관리가 일하던 모습, 그리고 다른 장소에서 이와미 은광으로 새로 부임한 다이칸이나 관리가 일종의 매뉴얼인 두루마리 그림으로 미리 임무를 학습하는 모습 등도 전시되고 있습니다.